

주제회의  
장애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노동 환경

염지애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정책기획팀장]

앞서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실태」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일할 시기인 30~40대 장애인의 높은 빈곤율, 50대 이후까지 지속되는 빈곤 격차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낮은 근로소득 비중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장애인, 일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빈곤을 짐작케 한다. 대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직업재활시설들은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 글에서는 광주광역시 29개 직업재활시설<sup>1)</sup>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 ○ 심한 장애/지적 장애 위주, 기초생활 수급률 높음

2022년 기준, 광주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893명(근로장애인 689명, 훈련장애인 204명)이다. 심한 장애(98.4%), 지적장애(84.2%)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청년기(20~30대 64.3%)의 장애인들이 약 69만 원 수준의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4.9%로 광주 전체 수급률 6.6%, 장애인 수급률 25.6% 보다 높다. 수급자의 경우, 급여로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어렵고, 급여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수급 탈락에 우려를 나타냈다.

### ○ 수익에 얽매인 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근로시간 단축

광주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비율은 31.5%로 근로장애인 평균 시급 7,968원, 월 평균 근무시간은 84.8시간이다. 직업재활시설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일부 시설은 기존의 장애인 급여를 줄이거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장애인 대신 훈련생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낮게 평가된 장애인은 훈련생이 되고, 특별한 기준 없이 시설 재량으로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평균 훈련수당은 121,000원으로 교통비나 식비 등을 제외하면 몇 만 원 수준이 될 듯하다.

직업재활시설들은 낮은 단가의 임가공 작업과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시설의 수익이 낮고, 생산·영업 전문 인력 부족으로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다고 했다. 수익에 얽매이다 보니 체계적인 훈련 여건이 안되며, 일할 사람이 없어 작업능력 있는 장애인 전이에 소극적이다. 수익에 따라 장애인 임금과 근무시간은 물론 전환과 전이가 결정된다. 수익 개선과 체계적인 훈련 강화를 통해 임금 보장과 일반고용 전이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 협력 연계와 생산품 및 판로 매칭, 체계적인 훈련 매뉴얼 마련, 장애인 훈련수당 및 임금 보전 필요성이 제기된다.

20~30대 장애인들은 자립, 연애와 결혼, 직업재활시설이 아닌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며, 근로인들도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능력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희망과 꿈을 찾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그 소득으로 삶의 수준이 개선되어 각자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1)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분석」의 시설현황 분석과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함